

광주·전남 '도박광풍' 성인 게임장

자고나면 수십개 '우후죽순' 솟방망이 처벌에 '배짱영업'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인어 이야기' '황금성' 등 소위 성인용 게임물 '빅3'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게임업소 대다수는 당첨확률 기관을 조작한 불법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불법이 적발되더라도 솟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최소한 기기 개변조를 한 사행성 성인 게임기에 대해서는 검·경의 즉각적인 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바다이야기' 등 광주·전남지역에 성업중인 사행성 성인 게임장은 모두 1천400여곳(광주 700여곳·전남 700여곳)이며 오락기는 게임장 한곳당 50~60대로 모두 8만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인 게임장은 '자유업'으로 분

류돼 시설규모, 위치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뒤 영등위의 심의를 통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게임기 비용은 최고 인기를 끌었던 '바다이야기'가 대당 700~800만원대, '황금성' 800만원대,

광주·전남 1,400여곳 8만여대 운영 기기조작 등 불법 만연... 폭력배 게임

'인어이야기' 600~700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보통 성인 게임장 개업(50대 기준)에는 5억원 상당의 목돈이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3~5명씩의 투자자들이 모여 성인 게임장 문을 열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만만치 않은 투자비가 들어간 만큼 신고를 마친 뒤 승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사행성 프로그램으로 변경, 상품권 할인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인 오락실이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자 대당 100만원대의 저가 성인 오락 기계까지 등장하면서, 주택가와 농촌을 가리지 않

고 침투, 전국에 도박 광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문을 여는 속도에 비해 단속의 속도는 더디고 솟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검찰은 지난해와 올 5월까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광주에 서만 김모(36)씨 등 35명을 구속했다. 이 중에는 서모(30)씨 등 조직폭력배 6명도 포함됐다. 또한, 올해 광주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모두 313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품권 사용 ▲게임기 설치비용 위반 ▲게임기 변조 등 가벼운 처벌에 불과한데다 1차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100만~300만원의 솟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업주들이 밀저야 본전식으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고 배짱영업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행성 성인 게임장 단속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반면, 성인 게임장은 자고 나면 수십 개씩 생겨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문광부 5차례 재심 요청... 영등위 목살"

정동채 前장관 "유 前차관 말 사실... '바다이야기'완 무관"

성인용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광주 서을)이 문광부가 5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동채 의원은 발언에 따라 문광부가 사행성 성인 게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나 영등위를 제지하지 못했고 여기에 영등위가 문광부의 재

심의를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광주 서을)이 문광부가 5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동채 의원은 발언에 따라 문광부가 사행성 성인 게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나 영등위를 제지하지 못했고 여기에 영등위가 문광부의 재

심의를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광주 서을)이 문광부가 5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동채 의원은 발언에 따라 문광부가 사행성 성인 게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나 영등위를 제지하지 못했고 여기에 영등위가 문광부의 재

심의를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광주 서을)이 문광부가 5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동채 의원은 발언에 따라 문광부가 사행성 성인 게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나 영등위를 제지하지 못했고 여기에 영등위가 문광부의 재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에 있는 '바다이야기' 성인오락실 게임장 출입구는 굳게 잠겨있고, 옆에는 '내부수리중'이라고 적힌 종이 붙어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檢 '바다이야기' 전면 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노지원·명계남씨 곧 出禁

검찰이 21일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의혹 등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내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행성 게임 관련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마조 조직범죄수사부(마조부)의 정윤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고 마조부 일반검사 3명과 새로 증원되는 특수부 검사 4명 등 모두 8명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리는 대로 대통령령의 조카로 우전시스티 이사사 재직했던 노지원씨와 명계남씨, 여권 인사 2~3명, 문화관광부 관계자, 게임기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필

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부 업주들은 회사가 거덜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수사다"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정정경계부는 '2006년 세계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

광주고법원장 이태운씨



이태운 고법원장

보았다.

정갑주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으로 옮겼다. /연합뉴스

석부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후임으로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중대 창원지법 원장 후임에 최진갑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제주지법원장 정갑주씨

대법원은 광주고법원장에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민 서울동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9명의 전보인사를 이달 24일로 단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프로필 4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는 차한성 제주지법원장, 이동훈 수원지법원장 후임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물가정보
http://www.kpi.or.kr
TEL: 1577-7300 FAX: 1577-4832

좋은 사람 좋은 여방 - 신물은 마땅히 값싸서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신물 유래 전통의 마트입니다.

추석연휴 상품권 이벤트

1,480,000	299,000
2,290,000	1,149,000
2,980,000	549,000
3,480,000	899,000
4,980,000	1,349,000
5,980,000	1,549,000
7,480,000	1,949,000
8,980,000	2,349,000

미부/대방우

물고기/아프리카피드